◈며느리 권씨 열전 27-1

향산 이만도의 부인 , 지사 이중업의 어머니, 김락의 시어머니

(숙부인 권씨, 복야공파 32世, 권승하權承夏의 딸)

권문의 관향, 안동은 1,000여년 전 병산전투로 KOREA를 있게 한 '본고장'이고 한국 독립운동의 출발지이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넘어, 일제 강점기 51년간 이어진 한국 독립운동의 심장 역할을 한 지역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391명/경북 1000명)를 배출하며 독립 의지와 실질적인 독립 준비의 중심지이다. 국가원수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용으로부터, 이제 실제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탄생시킨 지역이다. 예안은 한국정신의 거목 퇴계 이황의 출신지로서 아는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양 대축을 이루고 있다. 안동 권씨(권승하의 딸), 진성 이씨(이만도) 부부의 스토리는 매우 상징적이다.

안동 향산고택은 경북 안동의 조선시대 고택(안동시 퇴계로 297-6, 국가민속문화재 제280호) 향산 이만도를 비롯한 3대 독립운동가 가문으로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다. 그 기본 정신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恥)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사진 안동시

전국 최초 의병 봉기의 고장 (1894년 갑오의병)

안동의 독립운동은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한 '갑오변란'에 항거하여, 유생 서상철이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포고문을 발송했다. 이에 호응한 안동 일대의 의병 2,000여 명은 봉기하여 상주 함창과 태봉에 주둔한 일본군 병참부대를 공격했다. 이 갑오의병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전국 최초의 항일 의병 봉기로, 한국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이자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의병 항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적 인물과 활동

안동은 수많은 독립 지사를 배출했으며, 그들의 활동은 국내에서 해외 무대로까지 이어졌다.

이상룡: 1911년 만주로의 집단 망명을 주도하여 독립 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군사 양성에 주력했으며, 1925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에 추대되었다.

김동삼: 이상룡과 함께 만주 망명과 독립 기지 건설에 앞장섰다.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 에 대표 39인으로 서명했으며, 1923년 임시정부 내 주도권을 놓고 벌인 국민대표회의 의장을 맡는 등 독립 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지도자였다.

기타 인물: 시인 이육사, 역사서 '대동사'를 저술한 류인식, 그리고 김시현, 김지섭, 권기일, 권오설, 김시현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고장이다.

애국계몽운동과 해외 독립기지 건설

안동의 독립운동은 무장 투쟁과 더불어 교육과 사상 계몽을 통한 준비도 병행했다. 1907년 설립된 협동학교는 신학문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애국계몽운동의 거점이었다.

또한, 1911년 이상룡을 필두로 한 안동 지사들의 집단 만주 망명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만주에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백서농장 등을 차려 군사 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서로군정서, 한족회 등의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무장 독립 전쟁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

이만도 가문 독립지사 현황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향산과 아들 이중업 부부, 손자 이동흠 등 3대 독립지사가 함께 있는 가족 묘역으로 이곳은 국립현충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독립지사가 묻혀있다. 사진 월간중앙

이만도 (李晩燾) , (본인)

1866년 문과 장원급제 1895년 을미사변 때 안동에서 의병 창의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오적신 처형 상소, 1910년 경술국치 후 단식 순국,을미의병 활동, 을사늑항 반대, 경술국치 후 항의 단식 순국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호는 향산(響山). 퇴계 이황 11대손. 1986년 3대 독립운동가문 지정

이중업 (李中業), (아들) (1863~1921)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파리장서발의 및 서명 운동 주도, 전국 유림 규합 및 항일 운동,성재 권상익의 실(實) 고모부로 그와 함께 파리장서 운동(제1차 유림단 의거) 주도, 항일 의식 고취,198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호는 기암(起巖). 아버지 순국 후 독립운동에 전념

김락 (金洛) 며느리 (이중업의 부인) (1863~1929)

1919년예안군 3·1만세시위참여 체포 후 고문으로 두 눈 실명가족의 독립운동 지원,3·1만세운동 참가, 일제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가족 독립운동 후원,2001년 건국훈장 애족장, 의성 김씨. 친인척 중 독립유공자 25명

이동흠 (李棟欽) 손자 (이중업의 아들)

제2차 유림단사건(독립자금 모금 운동) 참여체포 및 옥고,김창숙 주도의 독립자금 모금 운동(제2차 유림단사건) 가담, 옥고. 1980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호는 이고(貳顧). 일제 고문으로 건강 악화

이만규 (李晩煃) (동생)

파리장서발송에 참여 (1919년)체포 후성산 감옥에서 옥사, 파리장서 운동(제1차 유림단 의거) 참여, 옥사 순국,1995년 건국포장 호는 유천(柳川). 형 이만도 묘소 인근에 안장

안동권씨족보. 성재 권상익의 고모부가 이만도이다.

이만도 계보

향산 이만도 선생의 가문은 조선 성리학의 대종장인 퇴계 이황의 11대손으로, 대를 이어 학문과 충의의 정신을 계승한 명문가이다. 그의 직계 조상들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낸 학자 관료였으며, 이러한 가풍은 이만도에게 깊은 학식과 나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그의 장인은 안동의 저명한 학자 가문인 예안 권씨 권승하로, 이만도의 학문과 의병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만도의 장남 이중업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병 활동에 참여하였고, 손자 세대에는 며느리 김락 여사가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며 3대에 걸친 항일 정신을 빛내었다.

연보 및 생애 요약

이만도 선생의 생애는 학문과 관료 생활을 넘어, 국난 앞에 목숨으로 항거한 의병이자 순국 지사의 길이었다. 1842년 안동 도산면에서 태어난 그는 1866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다. 그러나 1882년 한미수호조약 체결을 반대하며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으며, 이후 고향인 도산에서 백동서당을 설립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지내왔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예안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거하였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에는 '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는 등 일관되게 국권 수호에 앞장섰다. 마침내 1910년 한일병합이 이루어지자, 이 소식을 접하고 단식 24일 만인 같은 해 10월 10일, 청구동 자택에서 순국하였다. 그의 공로를 기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가문 및 학맥 계승

이만도 가문의 학문적 뿌리는 퇴계 이황의 성리학에 있다. 그의 학통은 퇴계로부터 이어져 조부인 하계 이가순, 부친인 복제 이휘준을 거쳐 향산 이만도에게까지 계승되었다. 이만도는 단순한 학문의 계승자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치화'와 '입지'의 실천적 정신을 되살린 인물이었다. 또한, 그의 장인인 권승하 가문은 예안 지역의 명문 유학 집안으로, 이만도의 학문과 의병 활동에 큰 지지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학맥과 혼맥을 통해 이만도의 항일 정신은 그의 아들 이중업(1863-1921)과 부인 독립운동가 김락(1862-1929)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김락은 3.1운동 때 고문을 당하여 두눈이 멀고 아들 동흠,중흠 그리고 사위까지 왜놈의 칼날 아래 죽어갔다.

사상과 행적 요약

이만도 선생의 사상과 행적은 퇴계 성리학의 실천적 이념, 즉 '충의'와 '의리'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개항과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는 정치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을사조약과 한일병합 직후에는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강직한 저항 정신을 보였다. 을미사변 이후에는 예안에서 직접 의병을 일으켜 무력 항쟁에 나섰으며, 평생을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학문과 교육의 길을 열었다.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지은 최후 또한 항일과 저항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1910년 한일병합 소식을 접한 후, "하늘과 선조께 죄가 크다"는 유언을 남기며 단식으로 순국함으로써, 한 평생 신념으로 삼았던 성리학적 의리를 지키고 조선 선비의 절의를 온전히 실천하였다.

관련 유적 및 추모

이만도 선생을 기리는 유적은 주로 그의 출생과 활동 무대였던 경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그의 묘소는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청량산의 조상 묘역 인근에 안장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그의 동생 이만규를 비롯한 가족 독립지사들의 묘가 함께 있어 3대에 걸친 독립운동 가문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안동 도산면에는 '향산선생 순국비'가 세워져 있다. 선생의 사상과 문장, 상소문 등을 엮어 펴낸 《향산집》과 《향산전서》가 남아 있어 그의 학문적 깊이와 독립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증여세 절세 전략 ①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추밀공파 35世·삼덕회계법인대표

1. 증여세의 의의 및 과세방법

증여세의 의의: 증여세는 생존하고 있는 자로부터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한 자를 증여인이라고 하고, 재산을 물려받는 자를 수증인이라고 한다.

증여세 과세방법: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증여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득과세형'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인이 2명인 경우보다 5명인 경우 증여세는 줄어들게 되어있다.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는 경우 첫번째 증여 후의 증여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 증여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거증여분과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①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에게 증여되었을 것

②최초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일 것

③합산과세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것

④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가액	국내외 모든 재산 (시가평가 원칙)
(-)비과세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증여재산가액	해당 재산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
= 증여과세가액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서화, 골동품: 5백만원 한도 비상장주식: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과세표준	
(x)세율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 산출세액	세대생략 증여 30%(40%) 할증
(-)세액공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
= 신고납부세액	

3.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가.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처서 접수일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 명의개서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자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나. 증여세 결정기한: 세무서자 등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시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수증자가 낼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납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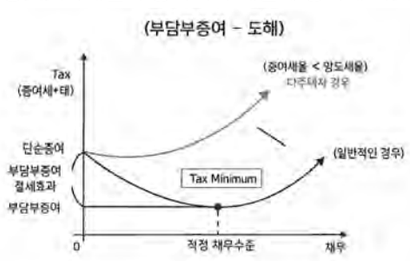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증여한 증여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납부할 능력이 없어 부모가 대납한다면 증여세에 대해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한다.

5.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부담시키고 증여하는 것을 뜻하며, 부담부증여는 2가지 세금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총세금(양도세, 증여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채무를 설정해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 전략중 의 하나이다. 채무를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세는 줄고, 양도세는 증가 하나 일정 시점까지는 총 세금은 감소한다. 그러나 일정시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 증가로 인한 세금이 증여세 감소 세금 효과보다커서 총세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되기 때문에 증여세 최고세율 50%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다. 즉, 부담부증여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하는 경우가 단순증여보다 절세효과가 있지만 채무에 따른 상속세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서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3장 뿌리에 대하여

4. 깨어나라! 천손(天孫)이여

(지난호에 이어)

한국인은 나반과 아만의 후손이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는 나반과 아만의 결혼이야기다. 나반과 아만은 지구촌 모든 언어가 뜻하는 아빠, 엄마의 어원(語源)이다. 한마디로 한국(桓國)은 인류문명의 시원(始原)이며 고대 인류의 종주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90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한민족(韓民族)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일제 강점기하 1922년 1월에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두고 단군조선을 신화로 만들고 한국사를 말살하여 민족정신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민족적 비극의 역사가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입을 봉해버렸기 때문이다.

왜! 해방 후에 이를 알면서도 우리 지식인들은 왜 가르치질 않는가? 이것도 역사인데….

그 당시 일본의 식민사학자인 일본인 이마니시류(今西龍)는 앞서 언급한 삼국유사의 '借有桓國'(?)을 '借有桓因'으로, 여기서 나라 국(國)자를 인(因)자로 변조하여 국명(國名)을 인명(人名)으로 바꾸어 놓았다.

어디 그뿐이던가, 한국(桓國)의 뒤를 이어서 18대(代)에 걸쳐 1,565년간을 이어온 배달국(倍達國)과 심지어 47대(代), 2,096년간을 아시아 대륙의 맹주(盟主)요, 지도국으로 있었던 단군조선(檀君朝鮮), 즉 고조선까지도 왜구의 후손인 승냥이들에 의하여 '전설화' 시켜버렸다. 이는 단군사 왜곡과 민족의식을 배제하여 일본족속의 우월성을 내세우려는 파렴치한 저들의 역사날조 내지는 역사의 도적질이었다.

2,000년도 채 안 되는, 섬나라가 위대한 한민족을 먹으려니 명분은 단 하나, 우리민족혼을 말살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통탄할 일은 저들이 날조, 왜곡해 놓은 잘못된 역사가 해방 후에는 친일파들이 민족교육의 수장이 되었고, 군사정권 때는 일본과 경제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행정서류에 단기를 쓰는 일마저도 폐 해버렸고, 그 후로는 역사 바로잡기에 뜻있는 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 뉘라서 온고지신(溫故知新)하려 하겠는가!

지금도 저들은 천황력(天皇歷)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단군조선을 그저 신화로만, 전설의 고향쯤 알고 있으니, 일본 왜구들의 조선정신 말살정책은 지금 까지도 저들의 의도대로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아! 원통하고, 절통하도다, 저들이 날조한 단군신화를 믿고, 저들이 바꿔치기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역사, 그리고 500년 조선의 역사와 잘못된 민족정신을 그대로 따라가는 참 역사에 무지한 이 나라의 백성들이여, 죽은 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국가의 부(富)인가? 아니면 우리의 재산(財産)인가? 더 늦기 전에 깨어서 일어나라!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는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사상의 모든 사서(史書)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를 분서갱유(焚書坑儒, B.C. 213)라 한다. 이와 더불어 유생(儒生)들 또한 생매장 하여버렸다. 이 때에 배달국(倍達國)이나 고조선에서 건너간 동이족(東夷族), 한민족의 모든 사서(史書) 또한 사라져 버렸다. 역사가 일천(日淺)한 저들에게 역사책다운 역사책은 별로 없음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일본 제국주의 무리들 또한 1910-1911년 1년간 우리들의 사서(史書)를 비롯한 51종(種), 20만권에 달하는 우리민족의 주요서적들을 강제로 수거하여 불살라버렸다. 이에 더하여 1937년까지 집요하게 14,950여 종(種類)을 불태워 없애버렸으니, 도대체 그 수량이 얼마이던가? 이것은 일제에 의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조시대에도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 등으로 많은 수의 책들이 소실(燒失)된 그릇된 것은 무지한 지배자들의 욕심이 민족정신문화를 그르치게 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단지 책이 불태워진 것으로 끝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이 땅에서 인류의 시원(始原), 생명의 원리, 우주의 비밀과 신비 등을 후손들이 알 수가 없도록 한 것이기에, 한 인간이, 한 나라와 민족이, 크게는 인류가 왜 사는지를 깨달아 알 권리를 막아버린 중대한 범죄이다.

아! 그러나, 하늘은 우리 한민족을 결코 버리질 않으셨던가!

이 나라, 이 땅의 천손(天孫)들에게 그 많은 계획된 지배계급과 제국주의 침략의 분탕질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위기의 시기에 세상을 구원할 진리의 문을 다시금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민족혼을 다시 깨우게 할 고대의 사서(史書)들을 하나 둘씩 세상에 등장시키시고 있다. 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조선 숙종 2년(1675)에 쓴, 고조선 단군 재위기간과 치적을 기록한 '규원사화(揆園史話)', '한단고기(桓壇古記)', '천부경(天符經)', '삼일신고(三一神誥)', '참전계경(參佺戒經)이다. 규원사화와 한단고기는 우리 한민족의 사서(史書)이고, 한민족이 참으로 알아야 할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은 깨달음을 얻는 삶의 경전(經典)이다.

깨어나자!

하늘은 한민족, 우리 천손(天孫)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자, 이제 알(틀, Frame)에서 깨어서 날아보자!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를 알고, 그리고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그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로다! (다음호에 계속)